

‘가고 싶은 섬’ 생일도, 숙박(宿食) 한꺼번에 해결 가능

체험·각종 편의시설 갖춘 리조트형 관광농원 개장해 관광객 맞이 4년만에 완공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 “섬 관광 묘미 보여드릴 것”

완도군의 대표적인 가고 싶은 섬 생일도에 숙박, 체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농원이 문을 열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생일도 금곡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관광농원은 지난 2016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영농체험, 동백체험, 버섯체험, 힐링 공원 등 체험시설과 200여 명이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22실의 고품격 숙박 시설도 갖췄다. 또한 120명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식당을 비롯해 노래방, 족구장도 갖췄다. 특히 길이 38m, 폭 8m의 야외

풀장은 금곡해수욕장과 다도해를 조망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장소로 인기가 높다. 생일도가 2016년도에 가고 싶은 섬 선정 후 밀려드는 관광객들의 숙박을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었으나 리조트형 대규모 관광농원이 들어섬으로써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엘관광농원 김경태 대표는 “이엘농원을 가고 싶은 섬 생일도의 랜드마크로 관리하고 섬 관광의 묘미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관광농원 주변에는 완도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백운산(483m)을 중심으로 빼어난 해안경관을 조망하며 걷는 생일섬길을 비롯해 금대로 유명한 금곡해수욕장, 명 때리기 좋은 너털경과 파도 소리를 활용해 마음을 치유하는 용출리 몽돌해변 등 관광 및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하다.



생일도는 약산도 당목항에서 여객선으로 약 25분 소요되며 하루 8회 운항한다. 예약문의는 이엘농원(061-555-8200)으로 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쫄비치 진도에서 1년동안 진도 특산품 ‘4억원’ 판매



지난해 7월 중순 개관, 1주년을 맞는 ‘쫄비치 진도’에서 보배섬 진도 특산품이 4억원 판매됐다. 특산품 판매장은 진도 지역 천

조트 ‘쫄비치 진도’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보배섬 진도 농수특산품의 우수성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으로 번지던

남해안의 체류형 관광·휴양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력의 80% 가량이 150여명이 진도군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채용됐으며, 쌀과 전복 등 진도 농수특산품 6억원이 식당 등에 식자재로 고정 납품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전남 도지사과 진도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 등 350여개가 판매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도 지난해 대비 1,200% 상승한 매출 5억여원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쫄비치 진도의 특산품 판매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 활성화 등을 통해 질 좋은 농수산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

매출 1위 울금 제품...농수특산품 홍보관도 함께 운영 ‘관광객 입소문’ 진도군 쇼핑몰 ‘진도아리랑몰’ 매출액 덩달아 5억여원으로 수직상승

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레저 등 사계절 체류형 휴양관광지인 ‘쫄비치 진도’의 지하 1층에 진도 농수특산품 홍보관과 함께 지난해 7월 19일 문을 열었다. 군은 진도 농수특산품 홍보관에 2명의 고정 인력을 배치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산품과 관광지 안내 등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왔다. 1년만에 매출액 4억원은 관광객

서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산품 중 진도 울금 가공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제일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곱창 김, 미역, 홍주, 멸치, 구기자 순으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 그룹이 2,106억원을 들여 타워콘도와 관광비치호텔 등을 갖춘 ‘쫄비치 진도’는 객실 576실 규모로, 개관과 동시에 진도군이 전남 서

에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를 위해 최대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특판 행사 ▲드라이브 스루 특산품 판매 ▲직거래 장터 등을 ‘쫄비치 진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지정 ‘청신호’...1차 인증 통과

2차 대면심사서 권고사항 세부계획수립 단계 거쳐

장흥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2차 대면심사를 앞두고 있는 장흥군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담은 세부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장흥군의회,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등 유관기

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존중과 의견수렴을 위한 어린이의회와 어린이 모니터링단의 운영, 아동권리교육의 시행, 2년간의 아동권리 홍보 달력의 제작 배포, 진로 직업 페스티벌, 어린이날 행사, 물축제에서의 적극적인 아동의견수렴과 아동권리를 홍보한 점 등에 대해 장흥군과 실무진의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4대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실천 등 10가지 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며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군, 탐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강진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진읍교회 및 탐동마을회관 앞에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했다. 군은 강진읍교회 주변과 군청으로 향하는 좁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많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폐가 3채를 매입·철거해 지난 6월30일 강진읍교회 앞에 14대, 지난 6월 23일 탐동마을 입구에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2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완료했다. 이송욱 군수는 “날로 늘어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주거지 주차장으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군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은 약 60여 대 규모로 수용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강진읍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차량에 주차장이 매번 부족할 실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사업 유치와 공한지 매입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천지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